

위대한 유산 '불복장' 의식, 영상으로 만난다

BTN 개국 20주년 맞아 HD 특집다큐 '은밀한 의식, 불복장' 방송

천년동안 이어져온 한국불교의 비밀의 식,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복장 의식 전 과정이 HD영상으로 공개된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개국 20주년 특집으로 '불복장'을 주제로 한 2부작 다큐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을 제작 방송한다.

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불상이 성스러운 예배대상으로 태어나는 불복장의식은 불교의 은밀한 의식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복장흔적이 발견된 일이 있지만 단순히 오장육부를 상징하는 물목정도다. 그러나 한국의 불복장 의식은 물목의 의미와 상징은 물론, 복잡한 의식의 절차와 까다로운 물목의 준비과정까지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이다.

BTN은 "불복장 의식은 중생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일반신도는 물론 스님들도 쉽게 볼 수 없는 비밀의식이었다. 소수의 율사스님들에 의해 스승에서 제자로 전승되어 온 소중한 한국불교의 무형문화재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불복장의 의미를 다른 정도의 방송이 전파를 탄 적은 있지만 불복장 전 과정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이번이 이번엔 제작된 2부작 다큐멘터리 '은밀

한 의식 불복장(佛腹藏)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HD영상으로 담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1부 '천년을 이어온 발원' 편에서는 국보 제58호인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을 비롯한 국보 및 보물 부처님의 과학적인 문화재보존처리 과정과 이윤과정, 불복장 의식 때 납입될 복장 물목들과 그 의미를 소개해 문화재보존이 재탄생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준다.

복장의식은 불상의 복장(배)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갖가지 물건을 집어넣는 의식이다.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면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후령통을 제작해 불상 안에 납입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비롯해 부처님의 마음인 무공심주와 심장에 해당하는 오보병을 넣는데 오보병은 오곡이라 하여 다섯 가지 곡식을 비롯해 오약 오향 등 65가지 물목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불복장 의식의 바탕이 되는 '조상경(造像經)'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조상경은 대일경과 금강장경 등 밀교경전에서 나온 불상조성관련 부분만을 모아 하나의 경전으로 집대성한 것인데, 한국에서 편찬된 불상관련 경전이다.

조상경에는 복장물목뿐 아니라 의식을 진행하는 복장 아사리 스님이 마음을 어떻

게 두고 어떻게 의식을 진행해야하는지 등 기본자세에서 계절별로 물목을 준비하는 과정, 복장단을 설치하고 의식을 진행하는 순서, 오보병의 65가지 물목과 납입순서, 한 가지 물목을 납입할 때마다 108번 봉송하는 진인 등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2부 '성스러운 탄생' 편에서는 실제로 오

장곡사 불상 재탄생 과정부터 의식 과정·복장물목 의미 '한눈에 유형무형 결합된 위대한 유산 기록 12일 밤 9시부터 2부 연속 방송'

보병을 조성하고 불상내부에 후령통을 납입하는 불복장의식 과정과 불복장의식 후 행해지는 점안의식을 통해 불상이 예배와 공경의 대상인 부처님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대한불교진흥원 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회장 무관 스님은 "불복장 의식은 보이는 대로 상에 잡히고 짐작하는 중생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의 세계다. 또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BTN불교TV가 개국 20주년 특집으로 2부작 다큐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을 제작 방송한다. 복장의식 중 복장물 납입 모습.

불상이 위신력을 갖춘 법신불로 태어나는 성스러운 탄생의식이기 때문에 사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다. 철저한 결계와 정화의식 속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한밤중에 의식을 행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비밀의식으로 천년 이상 은밀히 이어져오게 되었다"며 불복장을 설명한다.

소수의 율사스님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어져 온 불복장 의식은 현재 문화재청의 중

요무형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있는 한국불교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지만 그 맥이 끊길지도 모를 위기에 놓여있다. 제작을 담당한 윤정현 기획제작국 부국장은 "제작하는 내내 복장 의식을 단순히 영상으로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느꼈던 그 울림을 시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간소화되고 자칫 끊어질 수도 있었던 복장의식이 유형과 무형이 제대로 결

합된 한국불교문화의 위대한 유산으로 자리 잡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조금의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제작 의도를 밝혔다.

BTN 개국 20주년 특집 '은밀한 의식, 불복장 2부작'은 9월 12일 밤 9시에 1부, 10시에 2부가 연속 방송된다. 재방송은 9월 13일 오전 11시 30분, 12시 30분에 1, 2부가 연속 방송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이산 탐사 전주분원 실상사 '실상밴드' 창단

9월 12일 나누우리 환아돕기 콘서트서 첫 공연



마이산 탐사 전주분원 실상사의 실상밴드가 9월 12일 나누우리 콘서트서 첫 공연을 갖는다.

마이산 탐사 전주분원 실상사 법당은 요즘 색소폰 소리와 난타 북소리로 들쭉인다. 바로 9월부터 본격적인 공연에 나서는 실상밴드의 연습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실상사 신도들로 이루어진 실상밴드는 올 1월부터 색소폰과 난타를 연습해왔다.

실상사 회주 진성 스님은 "98년부터 시민선방을 운영해왔는데 신도들과 상담하면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년 전부터는 교도소 등에 봉사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번 실상밴드는 좀더 발전된 형태

로 신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46세부터 72세까지의 15명의 신도들로 구성된 밴드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스님의 지도에 따라 악기를 배우고 있다. 진성 스님은 대학시절 클라리넷을 연주했지만 손가락 부상으로 수술을 하면서 연주를 그만 두었고 삶의 문제를 고민하던 중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스님과 함께 매주 월수금 3회씩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 실상밴드는 9월 12일 나누우리 '환아돕기 희망나눔의 자선음악회'의 게스트로 나서며 첫 공연을 갖는다.

실상밴드는 이번 공연에서 어머니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를 난타공연으로 승화시킨 '디딤소리'와 즐거운 나의 집, 돌아와요 부산항에, 누이 등의 색소폰 연주 등을 선보인다.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김경은(52) 보살은 "50대는 우울증을 겪정해야 하는 나이에 봉사하며 악기연주까지 하니 삶이 너무 즐겁다. 첫 공연을 앞두고 떨리기도

하지만 마음을 편히 갖고 연습에 임하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난타를 연주하는 박성균(56) 보살은 "연주를 하며 가슴이 뻥 뚫리는듯 시원함을 느꼈다. 앞으로 이런 느낌들을 무대에서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기쁨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실상밴드는 교도소 양로원 요양원 복지관 군부대 등 음악이 필요한 곳이며 어디든 달려가 음식을 나누며 재능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진성 스님은 "이미 9월부터 5개 정도의 공연이 잡혀 있을 정도로 스케줄이 바쁘다. 앞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실상밴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실상사 밴드 첫 무대에 오르는 (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 '환아돕기 희망나눔의 자선음악회'는 9월 12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청소년 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헤인 정사 이랑 다례회의 다도 시연, 소고춤, 테너 이계환의 독창 등과 함께 실상밴드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나누우리가 선정한 환아를 음악회에 초청 치료비를 전달하는 시간도 갖는다. 정혜숙 기자

연자오곡밥 탄수화물 섭취 줄여 당뇨 예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당뇨 환자 위한 사찰음식 안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당뇨 환자를 위한 사찰음식 메뉴로 연자오곡밥, 시래기 된장찌개, 묵은 나물무침을 소개했다. 찹쌀, 차수수, 팥, 차조, 콩 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지은 연자오곡밥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하다. '연자'는 특히 위장을 편안하게 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식재료다. 불교 경전에서는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때 찹쌀과 연자로 죽을 섞어 먹으면 좋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찰식 시래기 된장찌개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래기와 무, 버섯가루, 제피가루를 넣고 개운하게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시래기는 된장과 궁합이 잘 맞으며, 무에 든 식이섬유는 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한다. 제피는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 매운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양념으로 스님들은 해독, 진통약 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취나물, 고사리, 토란줄기, 가지,



연자오곡밥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

시래기, 호박고지, 숙주, 시금치 등으로 다양한 맛과 향의 묵은 나물무침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봄, 여름에 채취하여 갈무리해 둔 묵은 나물에는 각 계절의 영양성분이 담겨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이밖에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제철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산사(山寺)의 조리법은 사찰음식 공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혜숙 기자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송암 김서경

- 제목 : 實戰四柱 강좌
-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 강의일시 : 매주 월 ~ 화, 목 ~ 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 수강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운신과 대운과 세운, 칠명,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배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동침교육 | 숙박휴양

암환자 전문 영양소 수시건강상담 유기농 죽염식단

원장 천범석

황토 동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 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부적기름의 혁명

松根油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쨍들지 않습니다.
- 방항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 010-8558-2345